

기고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대책이 시급하다

최근 부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아파트 화재 사고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10세, 7세 자매와 8세, 6세 어린 자매가 연이어 소중한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들 사고는 공통적으로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는 노후 아파트에서 발생했고, 거실 콘센트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고 전력 수요가 높아지는 여름철은 전기 화재의 위험이 더욱 커지는 시기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남 지역 전체 화재 1만 3,032건 중 아파트 화재는 354건이었으며, 이 중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가 210건에 달한다. 이는 노후 아파트의 화재 안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이다.

이에 완도소방서는 완도군 관내 스프링클러 설비 미설치 아파트 29개 단지에 대해 긴급 화재 안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노후 아파트의 자율 안전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화재 안전 컨설팅은 물론, '아파트아이' 앱과 같은 소통 공간을 활용하여 대피 계획 수립, 피난 시설 점검 및 사용법 안내 등 생활 밀착형 예방 활동에 전념할 방침이다. 이러한 노력은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특히 여름철 전기 화재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납은 배선과 피복을 수시로 확인하고 교체해야 한다.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피하고, 하나의 콘센트에는 하나의 플러그를 꽂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콘센트 및 가전제품 내부의 먼지를 주기적으로 제거하여 과열을 방지해야 한다. 누전차단기(두꺼비집)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부산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비극은 우리에게 더 이상의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화재 안전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

'나부터, 우리 집부터 실천하겠다'는 마음으로 사소해 보이는 안전 수칙들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한다면, 또 다른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완도소방서장 이민석

'사랑'이라는 말,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다. 심장이 쿵쾅거린다. 짙붉은 동백꽃 무리가 나이아가라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것 같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지 않을까.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만나지 않아도 통한다. 사랑이라는 큰 줄기의 힘이 강한 원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신뢰감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은 좋은 것이다. 그 어떤 악조건도 사랑은 헤쳐갈 수 있다. 진정한 사랑은.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거목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과거에 정부가 한글날을 맞이해 조사한 결과도 역시 '사랑'이라는 말이 1위였다. 아기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주고 싶은 단어도 1위가 사랑이었다. 그만큼 사랑은 삶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말인 것이다. 사랑은 곧 행복으로 통한다. 사랑이 없이는 행복이라는 꽃이 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들보다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 왜일까.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아가다 보면 미운 사람도 생길 수 있다.

특히 정신적·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준 사람이라면 미움을 넘어 증오심까지도. 하지만 용서해야 한다. 그래야 평온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미워하는 한 상대방도 날 미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상생작용을 일으켜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묘한 것은 미움의 대상보다는 미워하는 자가 더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상대방으로 인해 상처를 받아 고통받는 것도 억울한데 상대방은 그것을 인지도 못하면서 잘 살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내가 먼저 용서해 주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남을 변화시키기는 매우 어렵다. 하

지만 내가 먼저 변하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묘지에 누어있는 어느 성공회 주교의 묘비명처럼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닫는 다.

만약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좀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참으로 길이 남을 묘비명이다. 이재명 정부가 탄생 된 지 이제 두 달 조금 지났다.

정권을 잡은 쪽이나 그렇지 못한 쪽이나 각자의 처지에 따라 보는 프리즘이 다를 것이다. 나아가 길을 놓고 선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선택이 무엇이든지 분명한 것 하나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고 상대방을 어떻게 보복해 볼까 하는 생각만 갖게 되면 이 나라는 아수라장이 되어 버릴 것이다. 대한민국은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럴 때는 이 나라의 어른들이, 종교계의 대표자들이 중용지도를 들고서 나서보면 어떨까. 그런 거목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장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치는 화재가 발생했다. 숨진 20대 남성과 60대 여성은 모자(母子) 관계인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아파트 화재 상황에서의 인명피해는 주로 연기 흡입이나 화상, 추락(대피 중 사망) 사례가 많다.

최근 5년 동안 아파트 화재 사망자의 행

동을 분석한 결과 특히 대피 중 사망하는 경우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화재 상황에서는 무리한 대피보다 화재 상황에 따라 대피 여부를 판단하고 경우에 따라선 실내에 대기하며 구조요청을 하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

자택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하다면 젖은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를

유지하며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피난시설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 대피한다. 승강기는 절대로 타지 않는다. 대피공간이 없는 경우나 자택 또는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창문과 현관문을 닫고 상황을 주시하며 구조를 기다린다.

평상시에 자신이 사는 아파트 내 피난시설의 유무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대표적인 피난시설은 방화문으로 이뤄져 있는 대피공간과 창 밖으로 탈출할 수 있는 완강기, 발코니를 통해 하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 얇은 석고보드 등으로 구성된 누구나 쉽게 부수고 대피할 수 있는 경량구조칸막이 등이 있다.

화재 원인에 따라서 미처 대피할 수도 없어 사망할 수도 있지만 평상시 일반적인 대피요령을 익혀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지혜를 가져보자.

고흥소방서 과역119안전센터 소방위 한선근

오늘의 운세 2025년 8월 22일 금요일 (음력 윤 6월 29일)

48년생 손님용대는 친절함이 기본이다.60년생 누구라는 이름 보석으로 변해진다.72년생 작은 약속에도 손가락을 걸어보자.84년생 못한다 거절로 후환을 막아내자.96년생 배우려는 의지 합격점을 받아본다.

49년생 옛날 숯배 그대로 은퇴가 미뤄진다.61년생 살게 하는 농담 근혹을 치러야 한다.73년생 남기 힘든 산 포기하고 돌아서자.85년생 사서 하는 고생 품수도 못받는다.97년생 완벽한 마무리 박수는 덤으로 온다.

50년생 간성에 흔들리면 배가 산으로 간다.62년생 기회에서 망설임 땅을 쳐야 한다.74년생 질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보자.86년생 근거없는 허세 우습게 보여진다.98년생 최고가야.아도 만족을 가져보자.

51년생 충분한 이해 빈들이 필요하다.63년생 살리고 흥분되는 역할이 맡겨진다.75년생 기억에서 사라진 초심을 찾아보자.87년생 주려 하지 마라. 돌려받지 못한다.99년생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을 다시 하자.

52년생 양반다리 하고 주인행세 해보자.64년생 성공이라는 목표 손에 잡힐 듯 온다.76년생 취해도 좋은 만큼 기쁨이 커져간다.88년생 느리고 천천히 실패를 찍어내자.100년생 친미꾸리 안보는 지유를 가져보자.

53년생 해서는 안될 말 금기어로 해야 한다.65년생 솔직한 매력으로 관심을 받아내자.77년생 으뜸 성적표로 시험을 마쳐보자.89년생 수인과 지출 계산기로 두드리자.101년생 화방이라 쓰여진 소식을 들어보자.

54년생 가장 친한 손간 날개가 펼쳐진다.66년생 특별한 용기는 선물이 되어 온다.78년생 상처받은 자존심 새살이 돌아온다.90년생 여름보다 뜨거운 땀을 흘려보자.102년생 일취월장 숯배 무럭무럭 자라난다.

55년생 기대하지 못했던 축하를 받아보자.67년생 걱정 많은 속내 밖으로 꺼내보자.79년생 어울리는 조합 같은 꿈을 향해 가자.91년생 애정표 현은 부드럽게 해야 한다.103년생 구보는 개레신부터 쌓아보자.

56년생 만나고 싶던 인연 사람이 보여진다.68년생 나름의 규칙 우선순위를 알아보자.80년생 번개로운 준비 끝은 화려해진다.92년생 갈고뚝은 실패를 받는다.104년생 좋아지고 있다는 믿음을 지켜보자.

57년생 난감했던 표정 꽃으로 변해진다.69년생 멈추고 주저하면 기회는 달아난다.81년생 아심찬 계획에 첫걸음을 걸어보자.93년생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들려온다.105년생 궁극했던 번영 선물까지 들고 온다.

58년생 한탄 섞인 이야기 외롭고 쓸쓸하다.70년생 베풀면 결실 공간이 든든해진다.82년생 아속하다. 원망도 바람에 실어보자.94년생 귀한 가르침에 허리를 숙여내자.106년생 예쁜 척 하려다가 미움만 받는다.

47년생 오래 했던 소원이 현실로 보여진다.59년생 더할 나위 없는 호사를 누리보자.71년생 강하고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주자.83년생 근사한 도움이 급한 물을 꺼준다.95년생 피하고 싶은 자리 이유를 가져보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Kwangjeon Maeil Shinmun, including phone numbers, fax, and email address.

Large advertisement for 'Korea Expressway 50th Anniversary' featuring a hand holding a map of Korea and logos for EX and 50th anniversary.